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와 그 활용 가치*

김미선**

‖ 차 례 ‖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현황
Ⅲ.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 여행의 면모
Ⅳ.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활용 가치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가치를 정리하였다. 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제목에 '바다[海]'가 명시된 일기 14편, 제목에 '섬[島]'이 명시된 일기 9편, 제목에 바다 관련 지명이 명시된 일기 29편, 제목을 통해서는 바다 관련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내용상 바다 관련 유람이 핵심인 일기 7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는 총 59편으로,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16세기 3편, 17세기 8편, 18세기 14편, 19세기 32편, 20세기초(1910년까지) 2편이다. 이러한 유람일기를 통해 바다 관련 유람 여행의 면모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었다. 관직, 유배 등으로 인해 바닷가나 섬 지역에 있게 될 때 인근을 유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유람만을 목표로 길을 떠난 경우도 있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8476). 이 논문은 2021년 7월 2일에 열린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1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었다. 남아있는 유람일기가 많은 바다 관련 지역은 남해도(12편), 제주도(10편), 강화도(7편), 국도(3편), 동해(3편)로, 이러한 지역들이 주된 유람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바다 유람을 수양修養으로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활용 가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바다 관련 유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바다 관련 당대 삶과 문화를 보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바다 관련 문화콘텐츠 원형자료, 관광자원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 조선시대, 바다, 섬, 유람일기, 유람 여행, 활용

Ⅰ. 머리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바다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이다. 예나 지금이나 어민들에게 바다는 물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삶의 터전일 것이며, 여러 이유로 바다를 찾은 사람들에게 그 특별한 풍경이 위안을 주기도 하고, 풍랑이라는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

‘바다’라는 특별하면서도 매력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학 작품이 남아 있다. 시조, 한시, 가사, 민요, 설화, 소설, 일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에서 바다를 형상화하였다. 그중 일기는 실제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으로, 상상 속의 바다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실제 찾아가고 건너갔던 바다를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바다 관련 일기에 대한 연구는 표류일기에 집중되어 있으며,[1] 일기를 포함한 사행록을 통해 바다를 본 연구가 있었다.[2] 그런데

조선시대에 바닷가나 섬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48편을 살핀 논문이 한 편 있으나 섬에 제한을 두어 바닷가에 대한 일기는 함께 보지 않았고, 관직이나 유배로 인해 섬에 간 일을 기록한 일기도 포함되어 있어,[3] 유람일기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다'·'유람'이라는 주제로 일기를 조사하여,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활용 가치를 정리하고자 한다. 산수 유람에 대해 기록한 글은 '유기遊記', '산수유기山水遊記' 등으로 불린다. 이 경우 직접적인 경험을 기록하지 않고 산수에 대해 의론하거나 설명하는 글도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 바다 관련 지역

---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동아시아 표해록』, 역사공간, 2018;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제5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표류』, 해양수산부, 2019; 윤치부, 「韓國 海洋文學 硏究 - 漂海類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정성일, 「한국 표해록의 종류와 특징」, 『도서문화』 제40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2; 최영화, 「朝鮮後期 漂海錄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등. 이외 최부의 『표해록』, 장한철의 『표해록』 등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 김상원·이주형, 「조선통신사 여정의 해양인문학적 고찰 - 1636년 사행의 해로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4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김지현, 「17세기 초 대명 해로 사행록 서술의 양상」, 『한국문학과예술』 제15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5; 정영문, 「사행록에 나타난 조선지식인의 바다체험과 인식」, 『한국문학과예술』 제29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9; 정영문, 「조선시대 대일사행록에 기록된 바다체험과 일본 - 해행총재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63집, 우리문학회, 2019; 정영문, 「통신사행록에 나타난 '대마도'」, 『온지논총』 제27집, 온지학회, 2011; 정영문, 『朝鮮時代 通信使文學 硏究』, 지식과교양, 2011 등.

3) 김미선,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도서문화』 제53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을 유람하고 그 경험을 기록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람일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작품은 '기행일기'의 범주에도 포함되지만 유람이 목적인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행일기', '여행일기'가 아닌 '유람일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대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일기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화, 시조, 한시, 민요, 고전소설 등 고전문학 속 바다에 대한 연구 성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4]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관한 본 연구가 더해진다면, 우리

---

4) 고순희, 「우리 고전 해양문학 연구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해양문화』 제1집, 한국해양문화학회, 2005; 김광년, 「朝鮮 文人들이 바다를 통해 본 것들 - '觀海'를 제재로 한 한문 산문에 대한 考察」, 『한문고전연구』 제38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 김미선, 「실기문학 속 사실체험 공간으로서의 바다 - 『노송당일본행록』, 『표해록』, 『월봉해상록』을 대상으로」, 『도서문화』 제47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김진, 「崔致遠 漢詩 이미지 一考 - 바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5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변승구, 「고시조에 나타난 '바다'의 심상 고」, 『한국고전연구』 제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서철원, 「水路와 處容, 그리고 新羅 설화의 바다」, 『한국고전연구』 제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신진, 「한국 '바다시'와 그 유형」, 『비평문학』 제23집, 한국비평문학회, 2006;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윤인현, 「韓國 漢詩에 나타난 '바다' 소재와 주제」,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이경엽, 「고전문학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 漁父歌・漂海錄・漁撈謠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20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2; 이경엽, 「바다・삶・무속 - 바다의 의례적 재현과 의미화」, 『한국무속학』 제26집, 한국무속학회, 2013; 이남면, 「통신사행인의 바다 체험과 한시 - 남용익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제38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 이승은, 「고전소설 속 바다 형상과 근대적 변모」, 『고전과 해석』 제27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9; 이정선, 「고전시가에 나타난 '바다'의 한 인식과 그 의미 -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7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조규익・최영호,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조태성, 「'산 - 바다'의 공간 기호와 욕망의 진퇴」, 『국어국문학』 제156집, 국어국문학회, 2010; 주강식, 「시조와 해양문학」, 『논문집』 제4집,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최영호, 「바다의 기억, 기억의 바다」, 『에피스테메』 제4집,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2010; 최영호,

의 해양문학이 더욱 풍부하게 밝혀질 것이다.

Ⅱ.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현황

조선시대 기행일기는 현재 1,200편이 넘는 일기가 확인되었으며, 기행일기 속 주된 여행 목적은 '유람'으로 약 80%가 이에 해당하였다.[5] 그렇다면 이중 바다로의 유람을 기록한 일기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 현재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대한 전체적인 면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6]

「생명의 관점에서 「심청전」의 '바다' 다시 읽기」, 『문학과환경』 제4집, 문학과환경학회, 2005; 최영호,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최재남, 「한국 고전문학과 바다에 대한 인식」, 『한국고전연구』 제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양문화연구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등에서 해양문화 관련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양문화 연구에도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제7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pp.3-36;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제71집, 국어문학회, 2019, pp.151-182.

6)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헌과 DB가 활용되었다. 강세황 저/박동욱・서신혜 역, 『표암 강세황 산문 전집』, 소명출판, 2008; 국립수목원, 『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1-5, 한국학술정보, 2013-2016;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臥遊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김약행, 『仙華遺稿』, 교민, 2005; 송정악 외 저/나상필 외 역, 『서행록』 1-2, 한국학호남진흥원, 2020; 송정악 외 저/송관종 역, 『서행록』, 원진문화사, 2008; 안대회 외 편역, 『한국산문선』 1-9, 민음사, 2017; 오문복, 『제주도명승』, 제주문화원, 2017; 이정엄 저/이원균 역, 『국역 남려유고』, 보문, 2008; 정민 편,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1-10, 민창문화사, 1996; 정병호 외 역, 『경북 동해안 산수유람기』, 한국국학진흥원, 2012; 정운경

유람일기의 현황을 정리할 때, 유람시기별, 유람지역별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저자별 정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경우 어디까지를 '바다 관련'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 정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관련'에 포함시킨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대한 종합적 조사·정리를 처음 시도한 것이라, 이러한 기준을 밝히는 것이 이후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기는 산문 중에서도 분량,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일기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들이 고민을 해왔다.[7] 현대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기처럼 날짜와 날씨를 쓰고 그날의 경험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

저/정민 역,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남명학고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 미디어한국학(http://www.mkstudy.com/); 유교넷(http://www.ugyo.net/);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https://diary.ugyo.net/); 호남기록문화유산(http://www.memoryhonam.co.kr/)
본 논문에서 인용한 번역문 또한 『경북 동해안 산수유람기』, 『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한국고전종합DB' 등을 활용한 것이다.

7) 다음과 같은 논저에서 일기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송재용, 「『眉巖日記』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정구복, 「朝鮮朝 日記의 資料的 性格」, 『정신문화연구』 제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제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현실』 제24집, 한국역사연구회, 1997;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조선시대사학보』 제79집, 조선시대사학회, 2016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등.

기 때문이다. 정하영은 “명칭이 일기日記라고 해서 반드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을 기록한 것’이면 대체로 일기에 포함할 수 있다.”[8]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 아래 일기의 범위를 넓게 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의 기준으로 조선시대 일기를 제한하지 않고, 바다 관련 직접적인 유람을 기록한 다양한 작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람일기의 유람지역을 확인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제목을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遊○○기記’, ‘유遊○○록錄’, ‘○○기記’, ‘○○록錄’, ‘○○일기日記’ 등과 같이 ‘○○’에 주된 유람지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제목을 중심으로 바다 관련 유람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람일기 중 제목에 ‘바다[海]’가 명시된 경우가 있다. ‘바다를 보다[觀海]’, ‘동해東海’와 같이 제목에 바다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바다 관련 유람일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목에 ‘바다(海)’가 명시된 유람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범해록 泛海錄	기언 記言	허목 許穆	1595-1682	1638년 9월
2	순해록 循海錄	탐라문견록 耽羅聞見錄	정운경 鄭運經	1699-1753	1732년 4월 12일-16일
3	금산관해기 錦山觀海記	석당유고 石堂遺稿	김상정 金相定	1727-1788	1760년 4월 11일

8)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제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p.27.

4	동해유행기 東海遊行記	남려유고 南廬遺稿	이정엄 李鼎儼	1755-1831	미상(3월 10일-22일)
5	준해승유기 遵海勝遊記	관암전서 冠巖全書	홍경모 洪敬謨	1774-1851	미상
6	남유해상기 南遊海上記	병와집 病窩集	송심명 宋心明	1788-1850	1846년 4월-5월 22일
7	동해유관록 東海遊觀錄	기계문집 奇溪文集	김노선 金魯善	1811-1886	1852년 4월 10일-17일
8	해유록 海遊錄	우헌문집 愚軒文集	김양진 金養鎭	1829-1901	1854년 5월
9	고성동해금강기高 城東海金剛記	어당집 峿堂集	이상수 李象秀	1820-1882	1856년
10	병해북행기 並海北行記	어당집 峿堂集	이상수 李象秀	1820-1882	1856년
11	관해록 觀海錄	돈와유고 遯窩遺稿	김동권 金東權	1816-1877	1862년 3월
12	유심도관해기 遊沁都觀海記	호산집 壺山集	박문호 朴文鎬	1846-1918	1874년
13	유동해기 遊東海記	돈와유고 遯窩遺稿	김동권 金東權	1816-1877	1876년
14	관해일기 觀海日記	구암문집 究庵文集	이광로 李光魯	1828-1903	1885년 8월 21일-27일

이때의 바다 유람은 허목처럼 배를 타고 남해도 인근 바다를 다니며 유람을 할 수도 있으며, 정운경처럼 배를 타지 않고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는 유람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목에 바다가 명시된 유람 일기인 경우 바다 유람이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같다.

김상정의 「금산관해기」는 남해도의 금산을, 박문호의 「유심도관해기」는 강화도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금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경우 '유금산기遊錦山記', '유금산록遊錦山錄', '금산기錦山記', '금산기행錦山記行',[9] 강화도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경우 '유강도기遊江都

記', '유강도록遊江都錄', '강화일기江華日記'[10]와 같이 해당 산이나 섬의 명칭만 드러난 경우가 더 많다. 김상정과 박문호의 일기는 '바다를 보다[觀海]'라는 용어가 제목에 들어가, 바다가 일기에서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

'동해東海'의 아름다운 경관은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엄, 김노선, 김동권의 유람일기 제목에서 '동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김양진은 동해와 관련하여 일기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바다의 경관은 동쪽이 최고이다. 그래서 서남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가까운 데를 두고서 오니 지팡이 짚고 걸어오는 자들이 날마다 서로 이어졌다.[11]

조선 최고의 명승지라 할 수 있는 금강산은 그 산 자체도 빼어나지만, 인근 바닷가에도 해금강 등 아름다운 명승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유람을 기록하면서 인근 바닷가 유람까지 함께 기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금강산을 칭하는 용어로써 '해산海山', '해악海嶽'을 제목에 사용한 경우에도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수는 1856년에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고 24편의 일기를 남겼다.[12] 연속된 여정을 기록한 것이지만 여정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제목으

---

9) <표 3>의 16번, 20번, 23번, 27번.

10) <표 3>의 10번, 11번, 25번.

11) 金養鎭, 「海遊錄」, 『愚軒文集』. "海之觀, 東爲最耳. 濱西南而居者, 皆捨近而來, 笻屐日相望."

12) 「시등금수정기始登金水亭記」, 「화적연기禾積淵記」, 「동행산수기東行山水記」, 「유

로 문집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일기를 별도의 작품으로 보아 '바다[海]'나 '섬[島]'이 제목에 드러난 경우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포함시켰다. 위의 「고성동해금강기」, 「병해북행기」, 아래 <표 2>의 「주지천도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유람일기 중 제목에 '섬[島]'이 명시된 경우가 있다. 섬은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를 지나야 하며, 섬에서는 바다의 풍광을 끝없이 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섬[島]'이 제목에 명확히 드러난 경우 바다 관련 유람일기임을 곧바로 알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제목에 '섬〔島〕'이 명시된 유람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국도기 國島記	하곡집 荷谷集	허봉 許篈	1551-1588	1585년 가을
2	유국도록 遊國島錄	벽오유고 碧梧遺稿	이시발 李時發	1569-1626	1607년 윤6월
3	유국도기 遊國島記	목재집 木齋集	홍여하 洪汝河	1621-1678	1657년
4	유금당도기 遊金堂島記	매학집 梅壑集	서봉령 徐鳳翎	1622-1687	1683년

철이령기踰鐵彛嶺記」, 「지장안사기至長安寺記」, 「장안동명경대기長安東明鏡臺記」, 「장안동영원동기長安東靈源洞記」, 「오심백탑기誤尋百塔記」, 「숙영원암기宿靈源菴記」, 「장안북서저표훈사기長安北西抵表訓寺記」, 「표훈사헐성루등조기表訓寺歇惺樓登眺記」, 「표훈북서수미탑기表訓北西須彌塔記」, 「표훈북만폭팔담기表訓北萬瀑八潭記」, 「중향성기衆香城記」, 「유점사서은선대기楡店寺西隱仙臺記」, 「유점사구문기楡店寺舊聞記」, 「신계사서구룡연기神溪寺西九龍淵記」, 「신계서북만물초기神溪西北萬物草記」, 「고성서망금강외산기高城西望金剛外山記」, 「고성동해금강기高城東海金剛記」, 「고성북삼일호기高城北三日湖記」, 「병해북행기並海北行記」, 「통천북총석기通川北叢石記」, 「주지천도기舟至穿島記」

5	도유기 島遊記	증소집 橧巢集	김신겸 金信謙	1693-1738	1733년 7월 8월
6	금당도선유기 金塘島船遊記	존재전서 存齋全書	위백규 魏伯珪	1727-1798	미상
7	유송가도보문사기 遊松家島普門寺記	문산집 文山集	이재의 李載毅	1772-1839	미상
8	유한산도기 遊閑山島記	해장집 海藏集	신석우 申錫愚	1805-1865	1856년 4월 1일
9	주지천도기 舟至穿島記	어당집 峿堂集	이상수 李象秀	1820-1882	1856년

강원도 통천군의 '국도'와 '천도', 전라남도 완도군의 '금당도',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의 '송가도',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산도' 등 제목에 섬의 명칭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경우, 유람한 섬을 한 눈에 알 수가 있다. 국도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3편이나 발견되었는데, 이시발의 서술을 통해 국도가 유명하여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음을 알 수가 있다.

> 안변부 동쪽 바다 가운데 국도라는 섬이 있다. 매우 기이한 풍경으로 나라에 유명하였으니, '국國'으로 섬 이름 삼은 것이 그 때문이었다. 내가 본디 기이한 것을 좋아하여 보고자 생각하였으나 인연이 미치지 못하였다.[13]

국도는 현재 강원도 통천군에 속해있으며, 조선시대에는 함경도 안변에 속해있었다. 한양에서 멀어 조선시대에 유람을 위해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허봉은 유배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시발은 관북지역 관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홍여하는 금강산을 유람하는 길에 국도를 유람하였고, 국도 유람을 별도의 일기로 남겼다.

---

13) 李時發, 「遊國島錄」, 『碧梧遺稿』. "安邊府東, 有島海中, 曰國島, 以奇絶名於國, 島以國名, 其以此歟. 余本好奇, 思見之未有因."

김신겸 「도유기」의 경우, 제목을 통해서는 섬을 유람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김신겸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일대를 유람하였고, 그 일을 「도유기」에 기록하였다.

셋째, 유람일기 중 제목에 바다 관련 지명이 명시된 경우가 있다. 해변 명칭이 명시된 경우, 섬에 위치한 산 이름이 명시된 경우, '섬[島]'이라는 용어 없이 섬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다 관련 유람일기 중 이러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목에 바다 관련 지명이 명시된 유람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금골산록 金骨山錄	망헌유고 忘軒遺稿	이주 李胄	1468-1504	1502년 9월
2	유백사정기 遊白沙汀記	와유록 臥遊錄	남곤 南袞	1471-1527	1510년 8월
3	유한라산기 遊漢拏山記	와유록 臥遊錄	김상헌 金尙憲	1570-1652	1601년 9월 24일-25일
4	유한라산기 遊漢拏山記	와유록 臥遊錄	김치 金緻	1577-1625	1609년
5	유백사정기 遊白沙汀記	곡운집 谷雲集	김수증 金壽增	1624-1701	1672년 4월
6	내포유력기 內浦遊歷記	정재집 定齋集	박태보 朴泰輔	1654-1689	1675년 8월 9일-15일
7	탐라기 耽羅記	탐라문견록 耽羅聞見錄	정운경 鄭運經	1699-1753	1732년 2월 23일-28일
8	유한라산기 遊漢拏山記	회헌집 悔軒集	조관빈 趙觀彬	1691-1757	1732년 4월
9	이운유기 二雲遊記	수산집 修山集	이종휘 李種徽	1731-1797	1752년 4월

10	유강도기 遊江都記	계촌집 溪村集	이도현 李道顯	1726-1776	1757년
11	유강도록 遊江都錄	두암집 斗庵集	김약련 金若鍊	1730-1802	1757년 9월
12	유대흑기 遊大黑記	선화유고 仙華遺稿	김약행 金若行	1718-1788	1770년 2월 10일-18일
13	유격포기 遊格浦記	표암유고 豹菴遺稿	강세황 姜世晃	1713-1791	1770년 5월
14	유돈항기 遊豚項記	선화유고 仙華遺稿	김약행 金若行	1718-1788	1771년 8월, 10월
15	유소우이기 遊小牛耳記	선화유고 仙華遺稿	김약행 金若行	1718-1788	1771년 9월 25일
16	유금산기 遊錦山記	지애문집 芝厓文集	정위 鄭煒	1740-1811	1803년 9월
17	금악연승록 錦嶽聯勝錄	사농와문집 士農窩文集	하익범 河益範	1767-1813	1803년 9월 9일-19일
18	유남포기 遊南浦記	낙하생집 洛下生集	이학규 李學逵	1770-1835	1813년 9월
19	유마니산정족사기 遊摩尼山鼎足寺記	문산집 文山集	이재의 李載毅	1772-1839	미상
20	유금산록 遊錦山錄	솔성재유고 率性齋遺稿	박정일 朴楨一	1775-1834	1824년 9월
21	탐라일기하 耽羅日記下	포상세고 浦上世稿	이원호 李源祜	1790-1859	1841년 4월 17일-9월 7일
22	유한라산기 遊漢挐山記	응와집 凝窩集	이원조 李源祚	1792-1871	미상(1841년-1843년 사이)
23	금산기 錦山記	연재집 淵齋集	송병선 宋秉璿	1836-1905	1872년 9월
24	유한라산기 遊漢拏山記	면암집 勉菴集	최익현 崔益鉉	1833-1906	1875년 3월 27일
25	강화일기 江華日記	대계문집 大溪文集	이승희 李承熙	1847-1916	1879년 3월 13일-20일
26	유금산록 遊錦山錄	서비문집 西扉文集	최우순 崔宇淳	1832-1911	1890년 8월 8일-17일

27	금산기행 錦山記行	단계집 端磎集	김인섭 金麟燮	1827-1903	1892년 8월 27일-9월 17일
28	한라산기 漢拏山記	해은문집 海隱文集	김희정 金羲正	1844-1916	1895년 여름
29	영주유람기 瀛州遊覽記	추산유고 秋山遺稿	김운덕 金雲悳	1857-1936	1903년 11월 20일 -1904년 8월

해변인 황해도 장연의 '백사정', 부산의 몰운대와 해운대[二雲], 전라북도 부안 변산반도의 '격포', 섬에 위치한 산인 진도의 '금골산', 제주도의 '한라산', 남해도의 '금산', 강화도의 '마니산' 등 바다 관련 유람지역을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유람이 일기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제주도[耽羅, 瀛州], 강화도[江都], 흑산도[大黑], 소우이도[小牛耳]와 같은 섬 이름이 '도島'자 없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라산, 금산 같은 섬에 위치한 산 유람을 기록한 일기의 경우, 유산기遊山記로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섬에 위치한 산에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해야만 하고, 산에서 보게 되는 바다 풍광이 중요하게 서술되기도 한다.

> 곤양昆陽에서 비로소 바다를 볼 수 있었는데, 남해의 크기는 비록 동해에 미치지 못하나 흥취는 도리어 뛰어났다. 도로 주변은 산이 돌고 골짜기가 굽어서 굽이마다 바다였는데, 고깃배가 곳곳에 무리를 이루고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그림 속의 기이한 풍경이었다.[14]

14) 鄭煒, 「遊錦山記」, 『芝厓文集』. "昆陽地始見海水, 南海之大, 雖不及東海, 而滋味反勝焉. 道路之際, 山回谷轉, 曲曲而海水, 見漁舶處處成羣, 島嶼點點浮水, 眞畫中奇景也."

위는 1803년 9월의 남해도 금산 유람을 기록한 정위 「유금산기」의 일부이다. 인용문과 같은 바다에 대한 서술을 일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섬에 위치한 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경우에는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포함시켰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지역은 많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 변산반도에 위치한 변산 등 바닷가에 위치한 정자, 산을 유람하고 일기를 남긴 경우가 있고, 여기에도 바다 풍광이 서술되기도 한다. 섬에 위치한 지역을 유람한 경우에는 모두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포함시켰으며, 바닷가의 경우 해변 명칭이 제목에 드러난 경우에만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포함시켰다.

신안의 여러 섬, 제주도와 같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사람들이 유람만을 위해 찾기는 쉽지가 않다. 유배나 관직으로 인해 섬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중에 인근으로 유람을 떠나게 되고 일기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김약행은 신안 우이도 유배 중에 인근 섬과 해변을 유람하고 3편의 일기를 남겼고, 이원조는 제주목사로 있던 중 한라산을 유람하고 일기를 남겼다. 이러한 경우 일기가 '유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배일기나 관직일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유람일기에 포함시켰다.

이원조의 경우 부임하고 체직할 때 배를 타고 오갔던 일을 기록한 「도해기행渡海記行」이라는 일기도 남겼다. 이원조의 형인 이원호는 제주목사인 동생 이원조를 따라 제주도에 가게 되었다. 그는 위 표에 제시된 제주도 유람일기 「탐라일기하」 외에, 제주도로 가는 과정을 기록한 「탐라일기상耽羅日記上」, 제주도에서 고향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한 「귀정일기歸程日記」도 남겼다. 그런데 이때의 여정은 유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넷째, 제목을 통해서는 바다 관련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내용상 바다 관련 유람이 핵심인 경우가 있다. '서쪽으로의 유람[西遊]', '남쪽으로의 유람[南遊]'과 같이 제목으로는 방향만을 알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남해도 등 바다 관련 지역이 핵심 유람지역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기타 바다 관련 유람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통행일기 統行日記	서행록 西行錄	송정악 宋廷岳	1697-1775	1759년 4월 25일-5월 14일
2	서유록 西遊錄	호고와집 好古窩集	유휘문 柳徽文	1773-1832	1817년 8월-9월
3	동정록 東征錄	서소집 書巢集	김종휴 金宗烋	1783-1866	미상(9월)
4	남유록 南遊錄	백후집 柏後集	김기수 金基洙	1818-1873	1871년 9월 16일-10월 14일
5	유승평기 遊昇平記	연재집 淵齋集	송병선 宋秉璿	1836-1905	1882년 5월 2일-6월
6	남유기행 南遊記行	일석유고 一石遺稿	최병하 崔炳夏	1839-1924	1898년 8월 20일-9월 14일
7	남유록 南遊錄	정와집 靖窩集	박해창 朴海昌	1876-1933	1901년 4월 2일-19일

송정악의 「통행일기」, 김기수의 「남유록」, 최병하의 「남유기행」, 박해창의 「남유록」은 모두 경상남도 남해도 일대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유휘문의 「서유록」은 강화도 유람을 담고 있으며, 송병선의 「유승평기」는 순천 금오도 유람을 담고 있다. '승평昇平'은 전라남도 순천의 옛 지명이지만, 순천 지역 중에서도 금오도에 다녀온 일이 중심이므로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포함시켰다. 김종휴의 「동정록」은 "동쪽으로 길을 떠

난 것은 바다를 보기 위해서였다.[東征爲觀海也]"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실제 바다의 일출을 본 일을 감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동유록'이라는 명칭을 가진 유람일기 중에는 금강산 및 동해안의 관동팔경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것이 많다. 이러한 경우 금강산이 주된 목적지이고, 여러 지역을 유람하면서 바닷가도 일부 유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Ⅲ.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 여행의 면모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대한 조사·정리를 시행한 결과 59편의 일기를 확인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16세기 3편, 17세기 8편, 18세기 14편, 19세기 32편, 20세기초(1910년까지) 2편이다.[15] 이러한 일기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어떠한 상황에서 바다 관련 유람 여행을 떠날 수 있었는지, 바다 관련 주된 유람지역이 어떤 곳인지, 유람자들이 바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 바다 관련 유람 여행의 면모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산수 유람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심신 수양의 한 방법이었으며, 많은 선비들이 산수 유람을 꿈꾸었고 실제 실행하였다.[16] 유람에는 많은

15) 유람한 연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저자의 생몰연도, 일기의 내용, 문집에 수록된 다른 일기의 상황 등을 참조하여 해당 세기를 추정하였다.

16) 이와 관련 이상균은 "유람은 여행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산천의 경승지를 두루 보고 즐기며, 심신을 수양하고자 하는 여가餘暇의 의미가 강하다."(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硏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쪽)고 하였고, 정치영은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여행한다.'는 말이 있듯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산수 유람을 중요한 공부 수단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였다.(정치영, 『사대부, 산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사대부들조차 유람길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상으로도 멀었던 바닷가나 섬 지역으로 유람을 떠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선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바다 관련 지역으로 유람을 떠날 수 있었을까?

바다 관련 유람일기를 살펴본 결과 첫째, 관직, 유배 등으로 인해 바닷가나 섬 지역에 있게 될 때 인근을 유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때에는 험한 바닷길을 건너야 하는 남해의 먼 섬 지역, 한양에서 거리가 먼 황해도·함경도 지역 등을 유람한 경우가 많았다. 본인의 관직으로 인해 제주도에 있던 중 한라산 유람을 기록한 김상헌의 「유한라기」, 김치의 「유한라산기」, 이원조의 「유한라산기」, 가족이 관직으로 인해 제주도에 머물자 방문했다가 제주도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정운경의 「탐라기」와 「순해록」, 이원호의 「탐라일기하」, 관직으로 황해도에 있던 중 황해도 장연의 백사정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남곤의 「유백사정기」, 관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함경도 안변의 국도를 유람했던 있을 기록한 이시발의 「유국도록」 등이 관직으로 인해 바다 관련 유람을 하게 된 일을 기록한 작품이다.

유배로 인해 진도에 있던 중 금골산을 찾았던 일을 기록한 이주의 「금골산록」, 유배에서 돌아오던 길에 함경도 안변의 국도를 유람하고 이를 기록한 허봉의 「국도기」, 제주도 유배로 인해 한라산을 유람하게 되고 이를 기록한 조관빈의 「유한라산기」와 최익현의 「유한라산기」, 신안 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인근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김약행의 「유대흑기」·「유돈항기」·「유소우이기」 등이 유배로 인해 바다 관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p.10)

련 유람을 하게 된 일을 기록한 작품이다.

둘째, 유람만을 목표로 길을 떠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비교적 육지에서 가까워 섬 중에서도 이동이 쉬운 강화도, 남해도를 유람하고 이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강화도 유람을 기록한 김약련의 「유강도록」, 이도현의 「유강도기」, 유휘문의 「서유록」, 박문호의 「유심도관해기」, 이재의의 「유송가도보문사기」와 「유마니산정족사기」, 남해도 유람을 기록한 허목의 「범해록」, 송정악의 「통영일기」, 김상정의 「금산관해기」, 하익범의 「금악연승록」, 박정일의 「유금산록」, 김기수의 「남유록」, 송병선의 「금산기」, 최우순의 「유금산록」, 김인섭의 「금산기행」, 최병하의 「남유기행」, 박해창의 「남유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화도는 단군왕검, 몽고 침입, 병자호란과 관련한 역사적 유적이 있는 곳이고, 남해도는 금산이라는 명산이 있는 곳이다.[17] 그러면서도 육지와 가깝기 때문에 섬이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이 유람을 위해 많이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양에 과거시험을 보러 왔다가 인근 지역을 유람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북한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18] 이승희는 과거시험을 마치고 강화도를 유람하였으며 「강화일기」를 남겼다.

---

17) 강화도, 남해도와 관련하여서는 김미선의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도서문화』 제53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pp.45-47)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

18) 이와 관련 정치영은 "관직에 나가기 위한 필생의 과업인 과거에 낙방하고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 유람에 나서는 이가 많았다. 과거가 주로 서울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인 응시자들은 시험을 마치고 북한산을 오르는 사례가 많았다. …… 또한 고향에서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을 오가는 길은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명소를 유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과거 길을 이용한 유람도 이루어졌다." (정치영, 위의 책, p.65)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다 관련 유람지역 중 사람들이 많이 찾은 곳은 어디일까? 해당 지역에 대한 유람일기가 여러 편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일기 수량으로 바다 관련 어떤 지역이 명승지로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다. 이를 위해 3편 이상의 바다 관련 유람일기가 남아 있는 지역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3편 이상의 바다 관련 유람일기가 남아 있는 지역

유람지역	일기 편수	일기명(저자명)
남해도	12	범해록(허목), 통행일기(송정악), 금산관해기(김상정), 금악연승록(하익범), 유금산기(정위), 유금산록(박정일), 남유록(김기수), 금산기(송병선), 유금산록(최우순), 금산기행(김인섭), 남유기행(최병하), 남유록(박해창)
제주도	10	순해록(정운경), 유한라산기(김상헌), 유한라산기(김치), 탐라기(정운경), 유한라산기(조관빈), 탐라일기하(이원호), 유한라산기(최익현), 유한라산기(이원조), 한라산기(김희정), 영주유람기(김운덕)
강화도	7	유강도록(김약련), 유강도기(이도현), 서유록(유휘문), 유심도관해기(박문호), 강화일기(이승희), 유송가도보문사기(이재의), 유마니산정족사기(이재의)
국도	3	유국도록(이시발), 유국도기(홍여하), 국도기(허봉)
동해	3	동해유관록(김노선), 유동해기(김동권), 동해유행기(이정엄)

남해도의 금산, 제주도의 한라산, 강화도의 보문사 등 섬 안 일부 지역이 제목에 드러난 경우도 해당 섬에 포함시켰다. 남해도, 제주도, 강화도, 국도 등의 섬을 많은 선비들이 찾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동해안 지역은 매우 넓지만, 제목에 '동해'가 드러나고 동해를 보겠다는 저자들의 인식이 확인되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으로 넣었다. 이외 2편의 바다

관련 유람일기가 남아 있는 지역으로 여수의 금당도, 황해도 장연의 백사정이 있다. 서봉령의 「유금당도기」와 위백규의 「금당도선유기」, 남곤의 「유백사정기」와 김수증의 「유백사정기」가 해당 작품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바다는 어떤 곳이었을까? 바다 관련 유람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의 바다 인식을 확인할 수가 있다. 아래는 경북 의성의 선비 김노선이 1852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영덕 지역에가 동해를 보고 온 일을 기록한 「동해유관록」의 마지막 부분이다.

> 해내에 있는 자들이 한번 웅장한 유람에 힘써 그 가슴을 넓힐 수 있는 것은 바다뿐이다. 물에 임하여 하나로 관통하는 이치를 깨닫고 여울목을 보고서 태극의 핵심을 안다고 하였다. 여러 시내로 하여금 모두 모여 여러 물결이 같은 곳으로 돌아가면 사해의 밖을 껴안아 그 끝을 볼 수 없고 사해의 안을 운행하여 그 끝을 헤아릴 수 없게 되어 진실로 비로소 그 근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맹자는 성문聖門에 종유하는 것을 바다를 보는 것에 비유하였고 노나라 사람들은 공자를 뵙고는 큰 바다에 비유하였다. 아! 나는 아직 성인을 뵌 적이 없지만 이 바다를 보니 그 말씀이 옳도다. 이에 기록하여 바다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힘쓰도록 하노라.[19]

김노선은 바다를 유람하며 가슴을 넓힐 수 있고, 물에 임하여 하나의 관통하는 이치를 깨닫는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성문聖門에 종유하는 것을 바다 보는 것에 비유했던 맹자, 공자를 바다에 비유했던 노나라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바다를 보고 알았다고 하며, 바다 보는 것을 권유

---

19) 金魯善, 「東海遊觀錄」, 『奇溪文集』. "夫人之於是海之內者, 不得不一辦壯遊, 以廣其胸海耳. 臨水而悟一貫之理, 觀瀾而契太極之心. 使夫百川, 皆會而衆流同歸, 則抱乎四海之外, 而不見其際, 運乎四海之內, 而莫測其端, 儘可謂始到得其源矣. 昔孟子, 以遊聖門, 譬之於觀於海, 魯人見孔子, 而喻之於淵海之大. 噫, 聖人吾未之見, 得見是海, 斯可矣. 因以記之, 俾觀海者, 勉焉."

하고 있다. 김노선에게 바다는 유학의 핵심을 깨닫게 하는 곳으로, 바다 유람은 수양修養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854년 5월의 바다 유람을 기록한 안동 선비 김양진의 「해유록」에서도 “바다를 구경한 자에게는 큰 물 되기 어렵다.[觀於海者, 難爲水.]”는 『맹자孟子』의 글귀를 인용하며, 바다를 통해 유학의 이치를 체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양진은 바다의 물에 대한 관계가 성인의 백성에 대한 관계와 같다고 보았다.

관직이나 유배로 인해 바닷가나 섬에 있다가 인근을 유람한 사람들의 일기 속에도 바다는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바다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은 바다를 보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그 목표 하나로 길을 떠났던 사람들의 일기 속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海]가 제목에 드러난 유람일기를 통해, 조선시대에 수양을 위해 바다 유람을 떠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Ⅳ.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활용 가치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를 조사한 결과 59편의 일기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 여행의 면모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활용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바다 관련 유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산수 유람은 매우 성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문학 작품도 많이 창작되어, 산에 대해서는 일기를 포함한 산문을 조사·정리·연구한 성과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전국의 유산기를 모아 『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를 5권의 책으로 출간하였고,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계룡산, 금강산, 무등산, 백두산, 속리산, 월출산, 주왕산, 청량산, 청평산, 한라산 등에 대한 유람을 기록한 작품들이 번역서나 연구서, 논문 등으로 정리된 바 있다.[20] 또 조선시대의 유람문화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연구에서도 유산기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21]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산 유람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나,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문화를 볼 수 있는 연구 성과는 부족하다.

물론 조선시대에 바닷가까지는 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며 배를 타고

---

20) 강정화 외, 『지리산 유람록의 이해』, 보고사, 2016; 강정화・황의열 편,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2016; 강현경, 「鷄龍山 遊記에 대한 硏究」, 『한국한문학연구』 제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1-10, 민속원, 2016-2019; 권혁진, 「淸平山 遊山記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29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김대현 외, 『국역 無等山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김대현, 「無等山 遊山記에 대한 硏究」, 『남경 박준규박사 정년기념논총』, 남경 박준규박사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8; 김순영, 「무등산 유산기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용곤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답사기』, 혜안, 1998; 김용남, 「조선후기 俗離山遊記에 나타난 산수관」, 『개신어문연구』 제23집, 개신어문학회, 2005; 김용남,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2009; 박영호・김우동 역, 『국역 주왕산유람록』 Ⅰ・Ⅱ, 청송군, 2013-2014; 사경화, 「조선시대 月出山 遊山記의 개괄적 검토」, 『한문고전연구』 제38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 손오규, 「한라산 山水遊記의 산수문학적 연구」, 『퇴계학논총』 제26집,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15;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길구, 「鷄龍山 遊記의 硏究 - 콘텐츠 活用方案 摸索을 겸하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상태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1998; 정지아, 「淸凉山 遊山錄과 智異山 遊山錄 比較 硏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청량산박물관 편역,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Ⅰ-Ⅲ, 민속원, 2007-2012;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등.

21)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硏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등.

섬에 가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 살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은 바닷가나 섬으로 유람을 떠난 일들이 있었고, 그 경험을 일기로 남긴 경우들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59편의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는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의 동기, 주요 유람지역, 유람의 경로, 유람 중의 활동 등을 연구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바다 관련 당대 삶과 문화를 보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일기는 자신의 직접 경험을 풍부하게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일기 속에는 자신이 만난 사람, 자신이 본 풍경 등이 담기게 된다.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 속에도 함께 배를 탔던 뱃사람들, 섬에서 만난 그 지역 사람들이 담기며, 그들의 풍속도 기록되게 된다. 또 섬이나 바닷가에서 먹는 특별한 음식을 기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관련 유람 여행 과정뿐만 아니라 당대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담겨 바다 관련 삶과 문화를 보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배 한 척이 지는 해 옆에서 오는데 갈대 돛이 햇빛에 비쳤다. 바람이 매서워 반쯤 기우뚱했다. 잠깐 만에 두 섬 사이로 들어가 버렸다. 모슬진 사람의 말이, 육지의 물질하는 사람이 몰래 전복을 채취하는 것이라 한다. 그 섬에서 나는 전복이 가장 커서 간혹 5-6촌이 넘기도 한단다.[22]

위는 제주목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에 머물렀던 정운경이, 1732년에 바닷가를 따라 유람한 일을 기록한 「순해록」의 한 부분이다. 육지 사람이 제주도까지 와 전복을 몰래 채취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22) 鄭運經, 「循海錄」, 『耽羅聞見錄』. "一船從日邊來, 葦帆映日, 風利半欹. 瞥眼入二島間. 鎭人言, 陸地鮑人之偸採者也. 盖島之産鰒最大, 或過五六寸云."

있다. 이러한 바다 관련 다양한 사례를 유람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바다 관련 문화콘텐츠 원형자료, 관광자원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선조들의 다양한 삶을 담고 있는 일기는 문화콘텐츠의 원형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누리집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에 일기 속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창착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문화콘텐츠닷컴'에서도 일기에서 발굴한 콘텐츠를 일부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정리된 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바다 유람에 대한 문화콘텐츠 원형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고전문헌자료 발굴에 힘쓴 경우도 많은데, 경상북도 청송군에서는 주왕산 유람기록을 모아 번역한 『국역 주왕산유람록』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는 우리나라의 여러 바닷가, 다양한 섬에 대한 유람을 담고 있어 바다 관련 관광자원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옛 삼천진三千鎭에서 숙박하고 새벽 밀물을 이용해 바다로 들어가니 바다 위로 두어 길 정도 높이에 달이 두둥실 떠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뱃사람이 서쪽으로 노량해협을 가리키면서 남쪽 해안에는 충민사忠愍祠가 있고 그 앞에 남해대전비南海大戰碑가 있으며, 또 북쪽 해안에는 만력 연간에 왜군을 정벌한 명나라 장수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수군 도독 진린陳璘이 이곳에 주둔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23]

---

23) 許穆, 「泛海錄」, 『記言』. "宿於三千舊鎭, 乘早潮入海, 海上月高數丈矣. 海中舟人, 西指露梁, 其南岸有忠愍祠, 前有南海大戰碑, 又北岸有萬曆中皇明征倭將士題名, 蓋水兵都督陳璘, 嘗駐兵於此云."

위는 1638년 9월의 남해도 인근 바다 유람을 기록한 허목 「범해록」의 일부이다. 뱃사람이 소개한 여수 충민사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위와 같은 일기를 통해 17세기에도 이곳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근처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등도 알 수가 있다.

일기를 남긴 저자가 유람했던 지역은 이미 뛰어난 풍경, 역사적 의미 등으로 명승지로서 인정을 받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일기 속 바다 관련 유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고, 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과거 이야기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관광지 관련한 유람일기를 문화유산으로 소개하고, 일기에서 발굴한 이야기를 관광객들에게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는 등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를 관광자원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가치를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현황을 정리하였다. 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제목에 '바다[海]'가 명시된 바다 관련 유람일기 14편, 제목에 '섬[島]'이 명시된 바다 관련 유람일기 9편, 제목에 바다 관련 지명이 명시된 유람일기 29편, 제목을 통해서는 바다 관련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내용상 바다 관련 유람이 핵심인 일기 7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는 총 59편으로,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16세기 3편, 17세기 8편, 18세기 14편, 19세기 32편, 20세초(1910년까지) 2편이다. 이러한 유람일기를 통해 유람의 동기, 주된 유람지역, 바다에 대한 인식 등 바다 관련 유람 여행의 면모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었다. 관직, 유배 등으로 인해 바닷가나 섬 지역에 있게 될 때 인근을 유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유람하고자 하는 목표로 길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 남아있는 유람일기가 많은 바다 관련 지역은 남해도(12편), 제주도(10편), 강화도(7편), 국도(3편), 동해(3편)로, 이러한 지역들이 주된 유람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바다는 유학의 핵심을 깨닫게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바다 유람을 수양으로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활용 가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바다 관련 유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바다 관련 당대 삶과 문화를 보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바다 관련 문화콘텐츠 원형자료, 관광자원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조사·정리에 집중하였다. 바다 관련 유람일기의 전반적인 현황을 밝히고 유람 여행의 대략적인 면모를 파악하였으며, 활용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바다 관련 유람일기 연구의 단초를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두며, 각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논의는 추후 별도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바다 관련 유람일기를 바탕으로, 바다 관련 유람의 경로, 유람 중의 활동, 글쓰기 방식의 특징, 현대적 활용 방안, 각 개별 작품 연구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姜世晃,『豹菴遺稿』, 한국고전종합DB
金基洙,『柏後集』, 남명학고문헌시스템
金魯善,『奇溪文集』, 유교넷
金東權,『遯窩遺槁』, 국립중앙도서관
金相定,『石堂遺稿』, 국립중앙도서관
金壽增,『谷雲集』, 한국고전종합DB
金信謙,『檜巢集』, 한국고전종합DB
金若鍊,『斗庵集』, 한국고전종합DB
金養鎭,『愚軒文集』, 유교넷
金雲悳,『秋山遺稿』,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金麟燮,『端磎集』, 미디어한국학
金宗烋,『書巢集』, 한국고전종합DB
朴楨一,『率性齋遺稿』, 국립중앙도서관
朴泰輔,『定齋集』, 한국고전종합DB
朴海昌,『靖窩集』, 한국고전종합DB
徐鳳翎,『梅壑集』, 미디어한국학
宋秉璿,『淵齋集』, 한국고전종합DB
宋廷岳,「統行日記」, 호남기록문화유산
申錫愚,『海藏集』, 한국고전종합DB
柳日榮,『滄溟遺稿』, 국립중앙도서관
柳徽文,『好古窩集』, 한국고전종합DB
李光魯,「觀海日記」,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李道顯,「遊江都記」,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李象秀,『峿堂集』, 국립중앙도서관
李承熙,「江華日記」,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李時發,『碧梧遺稿』, 한국고전종합DB
李源祚,『凝窩集』, 한국고전종합DB
李源祜,『浦上世稿』,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李載毅,『文山集』, 한국고전종합DB

李種徽,『修山集』, 한국고전종합DB
李學逵,『洛下生集』, 한국고전종합DB
鄭　煒,『芝厓文集』, 한국고전종합DB
趙觀彬,『悔軒集』, 한국고전종합DB
崔炳夏,『一石遺稿』, 국립중앙도서관
崔宇淳,『西扉文集』, 국립중앙도서관
崔益鉉,『勉菴集』, 한국고전종합DB
河益範,「錦嶽聯勝錄」,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許　穆,『記言』, 한국고전종합DB
洪汝河,『木齋集』, 한국고전종합DB
洪敬謨,『冠巖全書』, 한국고전종합DB

강세황 저/박동욱・서신혜 역,『표암 강세황 산문 전집』, 소명출판, 2008.
국립수목원,『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1-5, 한국학술정보, 2013-2016.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臥遊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김약행,『仙華遺稿』, 교민, 2005.
송정악 외 저/나상필 외 역,『서행록』1-2, 한국학호남진흥원, 2020.
송정악 외 저/송관종 역,『서행록』, 원진문화사, 2008.
안대회 외 편역,『한국 산문선』1-9, 민음사, 2017.
오문복,『제주도명승』, 제주문화원, 2017.
이정엄 저/이원균 역,『국역 남려유고』, 보문, 2008.
정　민 편,『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1-10, 민창문화사, 1996.
정병호 외 역,『경북 동해안 산수유람기』, 한국국학진흥원, 2012.
정운경 저/정민 역,『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김미선,「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도서문화』제53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pp.33-64.
_____,「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국어문학』제71집, 국어문학회, 2019, pp.151-182. DOI : 10.23016/kllj.2019.71.71.151
_____,「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한국민족문화』제71집, 부산대학

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pp.3-36. DOI : 10.15299/jk.2019.05.71.3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硏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제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pp.25-43.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검색일 : 2021. 8. 30.
남명학고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 검색일 : 2021. 8. 30.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 검색일 : 2021. 8. 31.
미디어한국학(http://www.mkstudy.com/) 검색일 : 2021. 8. 25.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http://story.ugyo.net/) 검색일 : 2021. 9. 10.
유교넷(http://www.ugyo.net/) 검색일 : 2021. 8. 25.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 : 2021. 8. 25.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https://diary.ugyo.net/) 검색일 : 2021. 8. 25.
호남기록문화유산(http://www.memoryhonam.co.kr/) 검색일 : 2021. 8. 24.

Abstract

The Sea-related Pleasure Diarie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ir Utilization Value

Kim, Mi-sun

The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sea-related pleasure diaries in the Joseon Dynasty and summarized their utilization values. By title, the diaries were determined as 14 diaries with 'sea[海]' specified in the title, nine diaries with 'island[島]' specified in the title, and 29 diaries with sea-related place names specified in the title. Also, in terms of the contents, seven sea-related pleasure diaries were confirmed, although the title did not specify the sea.

A total of 59 sea-related pleasure diaries from the Joseon Dynasty have been identified, and by period, three pieces belong to the 16th century, eight pieces to the 17th century, 14 pieces to the 18th century, 32 pieces to the 19th century, and two pieces to the early 20th century (until 1910). These pleasure diaries offer a rough picture of what sea-related excursions look like. The writers of diaries made seaside or island tours in their adjacent areas while they were in office or exile. They also made tours only for the sake of excursions. The main sea-related tour areas mentioned in many remaining pleasure diaries are found to be Namhaedo (12 pieces), Jejudo (10 pieces), Ganghwado (seven pieces), Gukdo (three pieces), and East Sea (three pieces). Additio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ea excursions were viewed as self-cultivation opportunities.

The value of using sea-related pleasure diaries from the Joseon Dynasty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ea-related excursions research. Second,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examine sea-related life and culture of the time.

Third, they can be used as prototype data for sea-related cultural contents and the basic data for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Key Words : Joseon Dynasty, sea, island, pleasure diary, excursion, utilization

김미선
소속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전자우편 : paraoho@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11월 29일 투고되어
2021년 1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12월 28일 게재 확정됨.